

룩셈부르크의 농업현황과 정책

윤 선 희 *

1. 들어가며

룩셈부르크는 유럽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식 국가명은 룩셈부르크대공국(Grand Duchy of Luxembourg)이다. 963년 지그프리트(Siegfried) 백작에 의해 건국되었으며 1815년 빈회의를 통해 공국(duchy)에서 대공국(grand duchy)으로 승격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독일에 점령당했다가 이후 독립하였고 국가권력은 삼권분립에 기초하나 입법과 행정의 분리는 명확하지 못한 편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공(duke)은 2000년에 즉위한 앙리(Henri de Luxembourg) 대공이 맡고 있다.

유럽의 강국인 프랑스, 독일, 벨기에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베네룩스(Benelux)¹⁾의 일원으로서 유럽 강소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인구는 2018년 기준 약 6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1.2% 수준이며, 국토의 동서 길이 57km, 남북 길이 82km, 면적은 2,586km²로 제주도(1,849km²)보다 조금 큰 유럽에서 가장 작은 주권국가 중 하나이다. 룩셈부르크는 다른 베네룩스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대해 우방적인 관계이며 625전쟁의 참전국이기도 하다.

이처럼 작고 생소한 룩셈부르크라는 국가는 1인당 GDP가 2017년 기준, 약 10만 4,000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유럽 평균의 세 배 수준으로 작지만 강한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1950~1960년대에는 지하자원을 활용한 철강 산업과 자동차, 화학, 전기산업의 발전으로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었고 1970년대에 오일쇼크로 철강 산업이 쇠퇴하자 금융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현재는 수도인 룩셈

*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석사 (sunny35345@naver.com)

1) 서유럽의 세 이웃 국가인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정치 및 경제 연합이며 유럽 강소국의 상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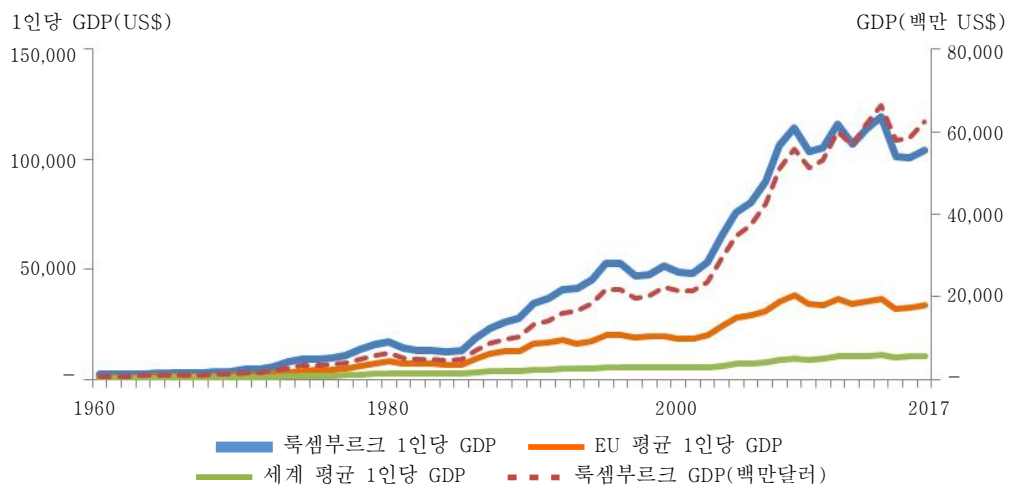
부르크시 내에 140여 개의 세계적인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자리 잡고 있어 스위스에 버금가는 금융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그림 1> 룩셈부르크 지도



자료: 이코노미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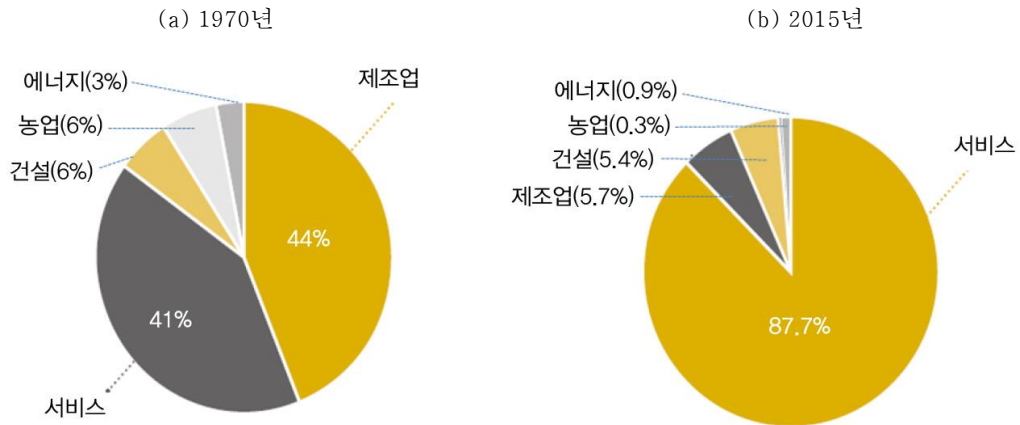
<그림 2> 룩셈부르크 GDP 추이



자료: Worldbank(<https://data.worldbank.org>)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의 규모는 크게 축소되어 현재 룩셈부르크의 총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1970년대 6%였던 것에 비해서도 매우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1차, 2차 산업을 대신해 국가 경제의 88%를 서비스업이 이끌어가고 있다. 본고는 룩셈부르크가 작은 국토면적과 산업적 경쟁력 약화 등 열악한 여건 하에서 어떻게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림 3> 룩셈부르크 산업 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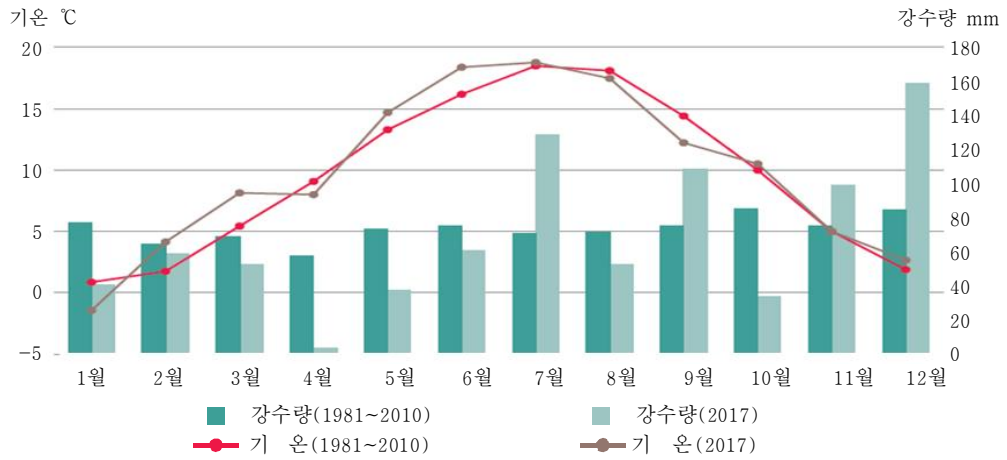
자료: 룩셈부르크 상공회의소(www.cc.lu)

2. 농업 현황

2.1. 지형 및 기후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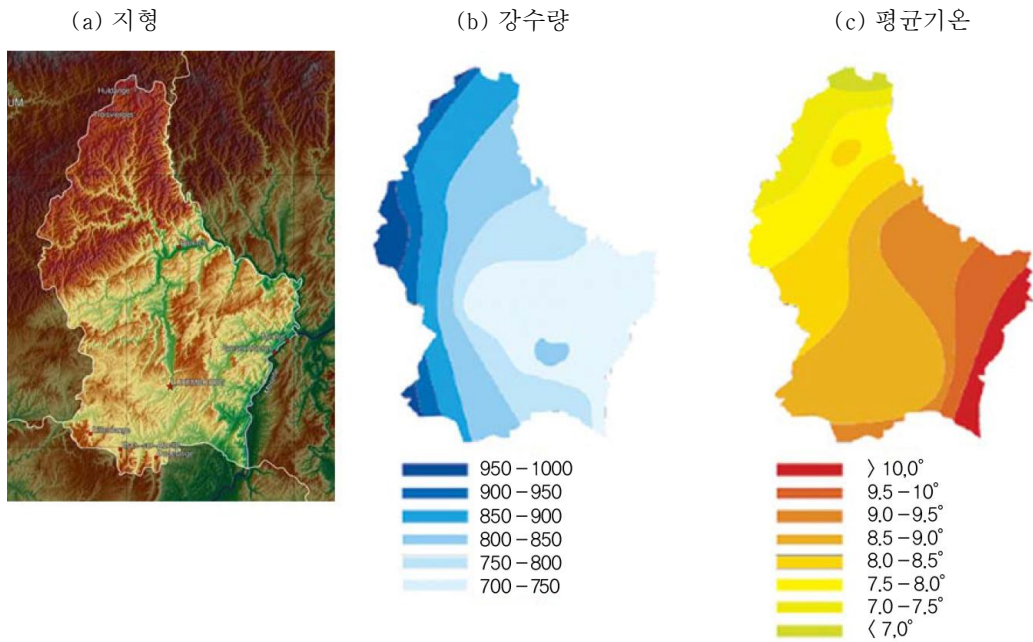
룩셈부르크는 연평균 기온이 9.6℃, 월 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 2℃, 최고 기온은 21.9℃로 겨울에도 온화한 온대 기후이며 강수량은 연간 총 800mm 내외로 월별 분포가 대체로 고른 편이다. 해발 400~600m의 높은 지형인 북서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많으며 지대가 낮은 남동지역은 기온이 다소 높고 강수량이 적은 특징이 있다.

<그림 4> 룩셈부르크 월별 기온 및 강수량



자료: Luxembourg in figures 2018(STATEC)

<그림 5> 룩셈부르크 지형 및 기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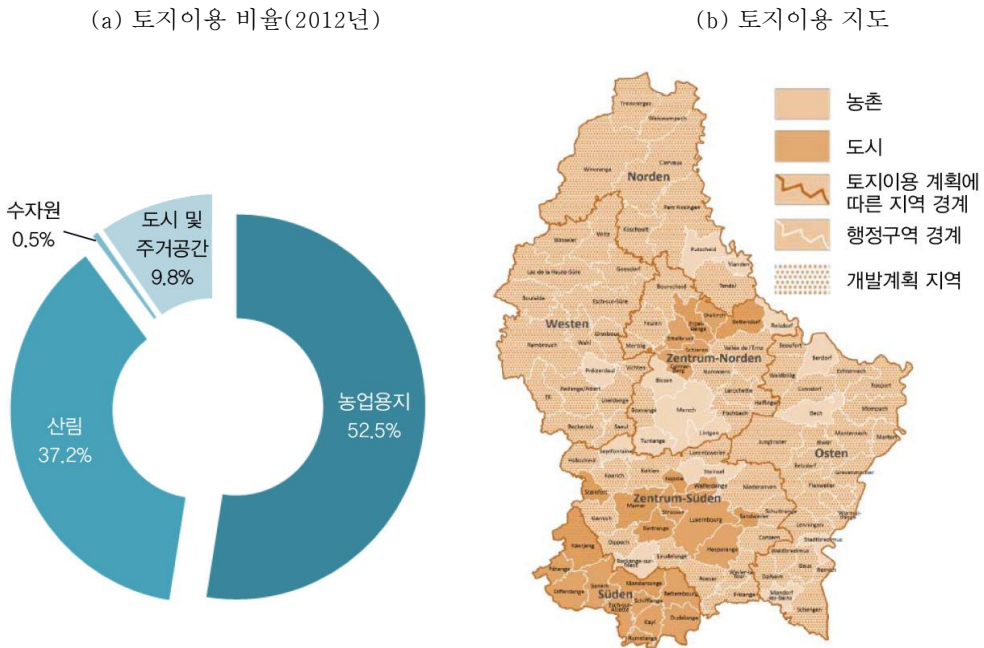


자료: ASTA(Administration des Services Techniques de l'Agriculture), Luxembourg

2.2. 농경지 이용

룩셈부르크의 국토 중 절반이 넘는 52.6%가 농업용지이고 그 다음으로 산림이 37.2%, 도시 및 주거공간은 9.8%를 차지하고 있다.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으며 큰 강이나 호수가 없는 지리적 조건 탓에 수산업은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림 6> 룩셈부르크 토지 이용 현황



자료 1: Ministèr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s Infrastructures, Administration de l'Environnement, 2014. National inventory of greenhouse gas emissions

자료 2: Rapport d'ctivité 2017, 룩셈부르크 농림부 (Le gouvernement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ministère de l'agriculture)

룩셈부르크의 농경지 면적은 1950년대 14만 4,000ha에서 산업화의 영향으로 1990년대에 12만 6,000ha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소폭 증가하여 2010년대에는 13만 1,000ha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국토의 절반 이상인 13만 1,384ha 수준이며 이 가운데 목초지와 초원은 6만 6,923ha이고 나머지 6만 2,798ha의 면적을 원예농업에 이용하고 있다. 원예작물 재배와 목초지 이외의 텃밭과 화훼, 과수 면적은 전체의 1% 내외로 미미하다. 농경지 중 목초지 면적은 지난 60여 년간 다소 증가하였는데 농경지 면적에서의 비중은

42%에서 51%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원예작물 재배면적은 1950년 약 8만 ha에서 2015년에는 6만 3,000ha 수준까지 감소하고 동기간 면적 비중도 55%에서 48%까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룩셈부르크 농경지 면적

단위: ha, %

구분	1950		1970		1990		2000		2010		2015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원예작물	79,628	55.3	64,228	47.5	55,891	44.3	60,927	47.7	61,951	47.3	62,798	47.8
목초지	60,893	42.3	69,094	51.1	68,827	54.5	65,277	51.1	67,593	51.6	66,923	50.9
텃밭	1,483	1.0	317	0.2	121	0.1	53	0.0	10	0.0	11	0.0
화훼	145	0.1	63	0.0	19	0.0	21	0.0	48	0.0	102	0.1
과수	1,904	1.3	1,441	1.1	1,440	1.1	1,365	1.1	1,503	1.1	1,550	1.2
농경지합계	144,053	100.0	135,143	100.0	126,298	100.0	127,643	100.0	131,106	100.0	131,38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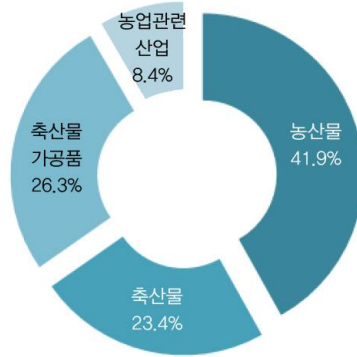
자료: Service d'Economie Rurale

2.3. 농업생산 구조

룩셈부르크 농축산업의 분야별 생산액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농산물이 41.9%로 가장 크고 농업 관련 산업은 8.4%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품의 생산액 비중은 각각 23.4%, 26.3%로 이 둘을 합하면 총 농축산업 생산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농업 관련 산업으로 농축산물 가공 및 판매, 농기계 등 서비스업은 이전보다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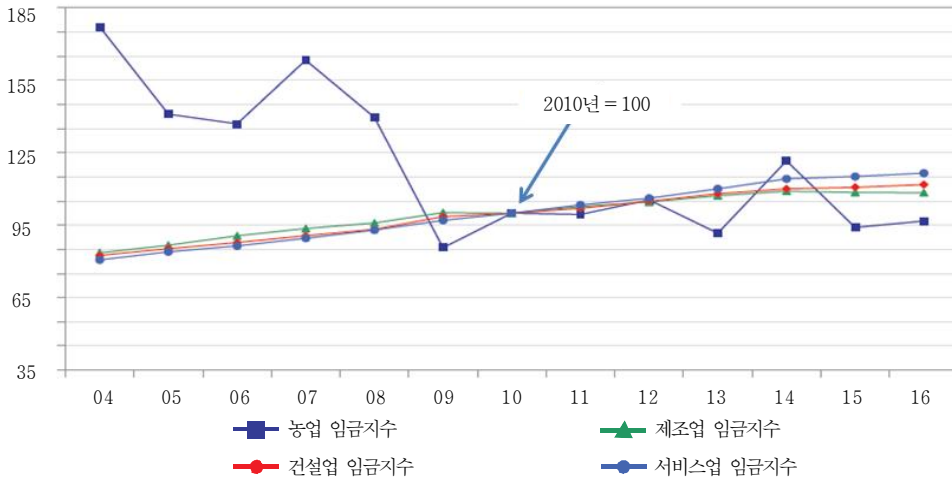
룩셈부르크 산업별 임금지수를 비교해보면 2010년을 기준(100)으로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은 연도별 큰 변동 없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반면, 농업의 임금지수는 연도별 변동성이 매우 큰데 이는 농축산업의 작황에 따른 생산량과 가격 변동성이 큰 특성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중에서 2014년을 제외한 7년간은 다른 산업들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농축산업의 경쟁력이 이전보다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 룩셈부르크 농축산업 생산액 비중(2015년)



자료: Service d'Economie Rurale

<그림 8> 룩셈부르크 산업별 임금지수 추이



자료: Service d'Economie Rurale

2.4. 농업경영체 구조

룩셈부르크는 농업에 이용 가능한 토지가 매우 제한적인 국가이며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농업에 고용되는 인구는 감소하고 이전보다 더 자본집약적이며 규모화 된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2016년 농가 수는 1990년의 절반 수준인 1,965호로 크게 감소했으나 농가당 경지규모는 크게 확대되어 규모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모가 10ha 미만인 농가의 비중은 1990년 34.4%에서 2016년 24.2%로 감소하는 동안 100ha 이상의 대규모 면적을 경작하는 농가는 2.8%(106농가)에서 24.5%(482

농가)로 그 비중과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은 1990년에 33ha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그 두 배인 67ha를 기록했다.

<표 2> 룩셈부르크 경지규모별 농업경영체 비중 추이

단위: 호, %, ha

구분	1990		2000		2010		2015		2016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총 농장 수	3,803	100.0	2,728	100.0	2,201	100.0	2,022	100.0	1,965	100.0
2ha 미만	523	13.8	335	12.3	220	10.0	185	9.1	172	8.8
2~5ha	465	12.2	270	9.9	158	7.2	139	6.9	135	6.9
5~10ha	319	8.4	245	9.0	217	9.9	176	8.7	169	8.6
10~20ha	388	10.2	207	7.6	171	7.8	164	8.1	163	8.3
20~30ha	307	8.1	156	5.7	120	5.5	123	6.1	107	5.4
30~50ha	685	18.0	346	12.7	242	11.0	195	9.6	199	10.1
50~70ha	1,010	26.6	424	15.5	257	11.7	223	11.0	209	10.6
70~100ha			449	16.5	381	17.3	350	17.3	329	16.7
100ha 초과	106	2.8	296	10.9	435	19.8	467	23.1	482	24.5
평균 재배면적	33.2		46.8		59.6		65.0		66.5	

자료: Service d'Economie Rurale

룩셈부르크 농업경영체의 경영형태는 가족농의 비중이 93.8%로 절대적이지만 기업농의 수와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기업농은 1990년 35호로 전체의 0.9%에서 2016년에는 121호(6.2%)로 증가하였다. 이는 경지면적 규모화와 연관된 발전으로 볼 수 있다. 겸업여부에 따른 비중의 변화는 크지 않은데 전업농의 비중은 연도별로 64~69%이고 겸업농은 31~36%로 나타났다.

<표 3> 룩셈부르크 농업경영체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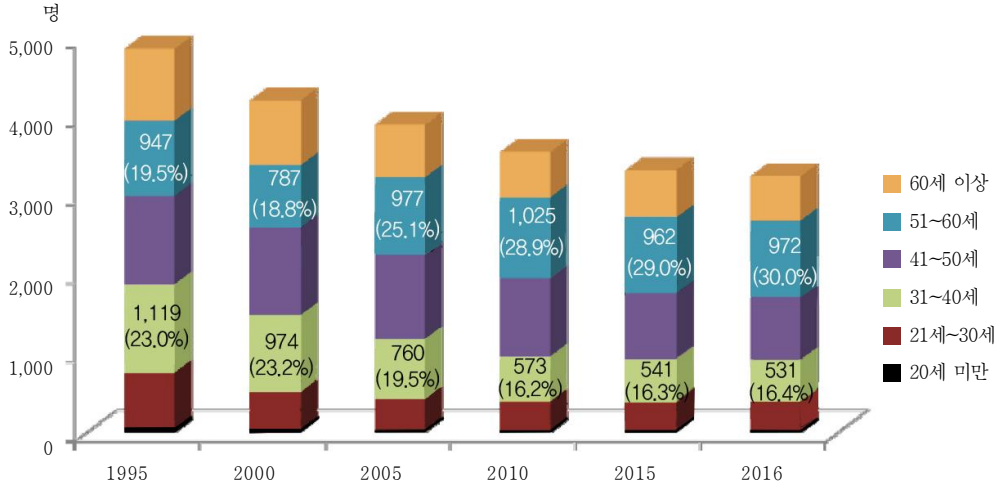
단위: 호, %

구분	1990		2000		2010		2015		2016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총 농장 수	3,803	100.0	2,728	100.0	2,201	100.0	2,022	100.0	1,965	100.0	
경영 형태	가족농	3,768	99.1	2,656	97.4	2,061	93.6	1,880	93.0	1,844	93.8
	기업농	35	0.9	72	2.6	140	6.4	142	7.0	121	6.2
겸업 여부	전업농	2,528	66.5	1,729	64.1	1,468	68.3	1,321	67.2	1,317	68.8
	겸업농	1,275	33.5	968	35.9	680	31.7	645	32.8	597	31.2

자료: enquête sur la structure des exploitations agricoles(STATEC)

농가경영주 연령분포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농가 수 감소에 따라 대부분의 연령대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50대 경영주의 수는 줄지 않고 그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9> 룩셈부르크 농가경영주 연령 분포 변화



자료: recensement agricole annuel au 15 mai(STATEC)

생산 분야별로는 총 농가의 2/3가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와인용 포도(15%) 및 기타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농가 경제 규모는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포도 등 원예작물이 따르고 있다.

3. 농축산물 생산

3.1 농산물 생산

룩셈부르크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은 밀과 보리, 트리티케일²⁾ 등이 있으며 이 세 품목의 생산량은 전체 곡물 생산량의 90% 수준이다. 이 외에도 호밀, 귀리, 옥수수 등이 있으며 2017년 기준 전체 곡물 생산량은 약 14만 9,000톤이다. 곡물 생산량은 생산성 향상에

2) 라이밀로도 불리는 트리티케일(triticale)은 밀과 호밀을 교잡한 잡종식물로 잎, 줄기, 이삭을 함께 이용하는 총체사료 사일리 지용으로 재배함.

따라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지난 2016~2017년은 작황부진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밀과 호밀, 트리티케일의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보리, 귀리, 옥수수 등의 곡물은 감소하여 주요 작물 생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 이외에도 유채와 두류, 감자 등을 재배하며 소량이지만 와인 생산을 위한 포도가 재배되고 있다. 와인 생산량은 경쟁력 약화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4> 룩셈부르크 주요 농산물 생산량

구분	단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곡물	합계	톤	147,586	152,830	160,552	166,185	176,516	139,271	149,480
	밀	톤	52,742	61,184	71,745	83,474	91,058	70,069	77,922
	호밀	톤	1,703	3,603	5,715	5,118	5,610	4,173	4,615
	보리	톤	62,821	53,533	52,853	43,003	44,382	34,005	34,956
	귀리	톤	12,150	9,217	7,734	4,789	5,879	5,287	5,922
	옥수수	톤	-	2,040	2,043	3,116	928	840	749
	라이밀	톤	14,591	19,843	18,530	25,523	27,373	22,843	23,700
	기타 곡물	톤	3,579	3,410	1,932	1,162	1,286	2,054	1,617
유채	톤	5,108	8,370	14,704	15,895	13,834	10,915	11,340	
두류	톤	1,380	1,235	1,474	887	1,319	1,048	1,471	
감자	톤	22,857	27,858	19,329	19,531	12,971	18,714	21,359	
포도주	hl	149,654	131,931	135,366	110,248	110,694	82,947	81,248	

주: hl(hectoliter)=100리터

자료: Service d'Economie Rurale

룩셈부르크 국내 소비를 위한 과일과 채소 생산량은 적은 양이지만 다소 증가하고 있다. 주요 재배 과일인 사과 생산량은 지난 2014년에 약 2,900톤으로 전체 과일의 94%를 차지하였으며 이외에는 배와 핵과류, 견과류, 베리류 등이 다소 생산되고 있다. 채소 역시 많은 양이 생산되지는 않으나 최근 몇 년간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하여 지난 2014년 채소 총 생산량은 2007년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채소는 당근과 상추인데 2014년 기준 생산량이 각각 1,000톤, 400여 톤이며 양배추와 토마토, 치커리, 호박, 양파 등도 소량 생산되고 있다.

<표 5> 룩셈부르크 과일 및 채소 생산량

단위: 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3	2014	
과일	합계	2,750	3,472	2,830	2,852	2,365	3,093
	사과	2,515	3,354	2,595	2,664	2,159	2,897
	배	282	275	255	258	233	282
	핵과류	188	85	191	146	162	150
	견과류	23	19	24	24	24	26
	베리류	24	14	20	18	20	20
	합계	1,050	1,080	1,186	1,237	2,202	2,552
채소	양배추	41	28	41	57	99	136
	상추	179	164	124	134	239	427
	치커리	76	65	67	79	120	140
	토마토	85	83	75	71	104	123
	호박	55	37	42	39	42	32
	당근	203	310	409	478	935	1,000
	양파	92	66	81	40	138	120
	기타채소	319	327	347	339	525	574

자료: ASTA(Administration des Services Techniques de l'Agriculture), Luxembourg

3.2. 축산물 생산

축산업은 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산액 기준 84.2%로 가장 크며 소 사육마릿수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4월 기준 총 소 사육마릿수는 20만 2,000마리를 기록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젖소의 경우 마리당 우유 생산성 증가와 우유생산제한 정책 등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감소해왔는데 우유생산제한 정책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사육마릿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 사육마릿수 역시 증가 추세이며 2017년 기준 9만 5,000여 마리로 조사되었다.

축산물 생산량은 식육용 송아지를 포함한 소고기의 비중이 가장 크며 2017년 기준 소고기는 도체 중량으로 약 1만 6,000톤, 국내 소비용 송아지고기는 약 190톤을 생산했다. 수출되는 식육 송아지 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 2만 2,000두를 넘었다. 소 다음으로 많은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7년에 약 1만 7,000톤으로 1995년 대비 약 2배 성장하였다. 반면 국내 소비용으로 사육되는 식육 새끼돼지는 2017년 약 1만 2,000두로 1995년

약 4만 1,000두에 비해 71% 감소하였다. 또한 수출용 식용 새끼돼지도 같은 해 약 8,400두를 생산했는데 이는 1995년보다 57% 감소한 수준이다. 양과 염소고기는 2017년에 177톤, 가금육은 251톤으로 생산량이 적지만 이는 1995년에 비해 각각 2.9배, 3.5배 증가한 양이다. 룩셈부르크의 주요 축산물가공품인 우유의 생산량은 2017년 38만 7,000톤으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달걀 생산량은 최근 몇 년간 2,000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에 비해 2.6배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유와 달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축산물 중에서도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표 6> 룩셈부르크 축산물 생산량

구분	단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소고기(도체중량)	톤	15,560	17,030	16,779	16,257	15,984	15,190	15,788
송아지고기(도체중량)	톤	245	475	355	252	201	205	194
식용 송아지 수출용(두수)	두	16,151	16,625	14,399	14,698	18,135	19,115	22,153
돼지고기(도체중량)	톤	8,950	11,710	13,728	15,142	15,625	16,802	16,907
식용 새끼돼지(두수)	두	41,200	34,426	30,526	13,774	17,673	14,746	12,103
식용 새끼돼지 수출용(두수)	두	-	19,584	7,095	17,383	18,116	12,252	8,417
양, 염소고기(도체중량)	톤	61	119	146	172	193	184	177
가금류고기(도체 중량)	톤	72	163	236	232	199	255	251
우유	톤	268,600	264,480	269,654	295,302	346,290	376,087	387,193
달걀	톤	775	943	1,424	1,684	1,952	2,063	2,091

자료: Service d'Economie Rurale

지난 2015~2016년에 원유 생산량 증가로 우유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원유 감산과 탈지분유 생산량 증대 등의 정책에 따라 2017년 상반기부터 가격이 안정화되었다. 이는 뉴질랜드의 우유 공급량 부족으로 우유와 탈지분유의 수출이 증가한 영향도 있었다.

3.3. 식품 수출입

룩셈부르크의 식품 및 동물 수입액은 2017년 약 16억 유로로 전체 상품 수입액(189억 8,000유로) 중에 8.4%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0년보다

는 19% 많은 수준이다. 식품 및 동물 수출액은 2017년에 약 9억 유로로 전체 상품 수출액 (126억 6,000유로) 중에 7.1% 수준이다. 이는 2000년 대비 175%, 2010년 대비 35% 증가한 수준이다. 식품 및 동물 수입액은 수출액보다 78% 많아 식량 순수입국으로 볼 수 있다. 식품의 수출입은 주변국인 벨기에, 프랑스, 독일과 가장 많은 부분 이뤄지고 있다. 수출되는 식품은 주로 식용 송아지와 새끼돼지, 유제품 등이며 인구 및 소득 증가에 따라 국내 식품 수요도 늘고 있다.

<표 7> 룩셈부르크 식품 수출입

단위: 백만 유로

구분		1993	2000	2010	2015	2016	2017
수입	전체 상품	6,752	11,633	16,302	17,658	17,636	18,984
	식품 및 동물	532	736	1,343	1,644	1,578	1,597
수출	전체 상품	5,041	8,498	10,638	11,673	11,903	12,661
	식품 및 동물	274	327	667	913	838	899

자료: 룩셈부르크 통계청 (<https://statistiques.public.lu/stat>)

4. 농업정책

룩셈부르크는 다양한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보조금 등의 정책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SER(Rural Economy Service)³⁾은 룩셈부르크의 농업 지원 정책을 총괄하고 ATSA(Agricultural Technical Services Administration)⁴⁾는 현장을 점검,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4.1. 직접지불제도

룩셈부르크의 직불제는 기본 직불금과 친환경농업 및 경관 직불금, 영농후계자 직불금, 콩과작물 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EU의 공동농업정책인(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를 정책의 기본으로 하며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사업별 예산은 다음

3) 룩셈부르크 농림부 산하의 기관임.

4) SER 산하기관으로 농업 관련 정책의 추진을 보조함.

<표 8>과 같으며 지난 2017년 총 직불금 예산은 약 3,300만 유로이다. 현재 직불금은 룩셈부르크 농가 비농업소득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에는 1,803농가가 12만 2,506ha의 농경지면적에 대해 약 2,300만 유로의 기본 직불금을 지급 받았다. 직불금 대상의 권리는 농경지의 구매와 임대, 상속 등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표 8> 룩셈부르크 2017년 직불금 예산

단위: 유로

구분	예산액
기본 직불금	22,779,000
친환경농업 및 경관 직불금	10,046,000
영농후계자 직불금	502,000
콩과작물 직불금	160,000
합계	33,487,000

자료: Service d'Economie Rurale

친환경농업 및 경관 직불금은 작물의 다양화, 목초지의 유지, 친환경농법의 실천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위 면적당 동일한 금액이 지불되며 직불제 전체 예산의 30% 수준에서 설정된다. 친환경농업 및 경관 직불금은 2016년에 ha당 82.75유로였고 2017년에는 80유로로 설정되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상 농가는 경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직불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한 경관 유지와 관련한 다음의 세 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일정 면적 이상을 경작하는 농장에게 작물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10~30ha의 농경지를 경영하는 경우 하나의 작물이 전체 면적의 75% 이상을 차지할 수 없으며 30ha 이상의 농장은 세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목초지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셋째, 농업 이용 가능한 토지(Useful agricultural areas, UAA) 가운데 일정 비율을 목초지로 유지하는 것을 국가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농후계자 직불금의 지급 조건은 농장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기본 직불제 신청 이전 5년 간 농촌에 정착한 40세가 넘지 않은 젊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농후계자 직불금은 최대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농가 당 연간 최고 지불액은 5만 유로이다. 2017년에는 102명에게 총 59만 2,542 유로를 지원하였다.

콩과에 속하는 완두콩, 누에콩, 토끼풀, 알팔파⁵⁾, 살갈퀴⁶⁾, 루피너스⁷⁾, 렌틸콩⁸⁾ 등을 생산하는 농가는 콩과작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작목들은 콩과에 속하며 식품 또는 사료로 이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2017년 콩과작물 직불금은 354농가에 약 15만 유로가 지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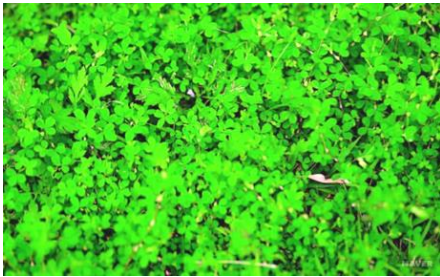
<그림 10> 콩과작물재배 직불금 대상 작물



(완두콩)



(토끼풀)



(알팔파)



(건조 알팔파)



(루핀)



(렌틸)

자료: google.

- 5) alfalfa,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의 여러해살이풀임.
- 6) vetche,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의 덩굴성 두해살이풀임.
- 7) lupine, 쌍떡잎식물 이판화군 장미목 콩과의 루피너스속 식물임.
- 8) lentils, 남부 유럽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일년생 콩과 식물임.

4.2. 조건불리지역 보조금

룩셈부르크는 조건불리지역(less-favored regions)에서 경작하는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내 농경지 가운데 조건불리지역에서 3ha 이상을 경작하고 연간 총 매출액이 9,600유로 이상인 농가가 지급 대상이다. 지난 2016년에는 보조금으로 총 1,473만 유로가 지급되었다. 보조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책정되는데 60ha까지는 ha당 150유로이고 60ha를 초과하는 면적은 ha당 75유로로 계산된다.

5. 결론 및 시사점

룩셈부르크라는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규모가 작다는 것과 이에 굴복하지 않고 적극적인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발전을 이뤄냈다는 점이다. 작은 국가이며 주변 강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철강 산업과 금융업 등 특정 산업에 집중하며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을 이끌어왔다. 룩셈부르크의 농업은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산업 규모가 축소되었다. 1970년대까지 국가 경제의 6%를 책임지던 농업은 현재 0.3%라는 매우 미미한 규모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협소한 농경지면적과 경쟁력 약화 등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룩셈부르크의 농경지 면적은 1990년대 이후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목초지는 면적과 비중이 함께 늘고 있다. 협소한 국토 면적에서 필요 이상의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직불제와 보조금 등의 정책을 통해 자연과 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농업 구조적으로는 고용 인구가 감소하고 평균 경작면적이 확대되며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축산업과 축산물 가공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영주의 연령대가 고령화되는 일반적인 추세와 다르게 40~50대가 주축이 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식량 수입량이 수출보다 많아 자급률이 낮은 편이나 최근 과일과 채소, 달걀, 우유 등의 생산이 늘고 있다. 신선도가 특히 중요한 식품들에 대해 이전보다 생산역량을 집중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한 경쟁력과 축소되는 산업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지향하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룩셈부르크의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은 한정된 자원 내에서 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한편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보전과 신선한 먹거리 공급, 이와 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룩셈부르크 농업의 역할 설정이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글로벌이코노믹. 2018.7.12. “미중 무역전쟁 전면전, 국가별 피해규모 순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4.7.15.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원하는 강소국 룩셈부르크”
- 이코노미조선. 2018.12.17. “유럽 강소국 룩셈부르크, 왜 주목해야 하나, 독자 기술 전무<全無>... 그래도 우리는 우주로 간다”
- 이코노미리뷰. 2017.8.7. “1인당GDP 10만불 ‘룩셈부르크’...어떻게 퀀텀점프 했을까”
- ASTA(Administration des Services Techniques de l’Agriculture), Luxembourg.
- Chambre de Commerce Luxembourg. 2017. Luxembourg economy Open Dynamic Reliable.
- EPEA Internationale Umweltforschung GmbH. 2014. Luxembourg as a knowledge capital and testing ground for the circular economy.
- Le Gouvernement du Grand-Duche de Luxembourg. 2013.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Agriculture Microinsurance.
- Le Gouvernement du Grand-Duche de Luxembourg. 2016. Luxembourgish Agriculture Facts and Figures.
- Le Gouvernement du Grand-Duche de Luxembourg. 2017. Rapport d’ctivité 2017.
- Le gouvernement du grand-duche de luxembourg, ministere de l’agriculture. 2017. Rapport d’ctivité 2017.
- Luxembourg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7. How Luxembourg reduces pesticides in agruculture.
- Ministèr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s Infrastructures, Administration de l’Environnement, 2014. National inventory of greenhouse gas emissions
- STATEC. 2018. Luxembourg in figures.
- Willer, H. and Lernoud, J. 2017.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참고사이트

- 룩셈부르크 상공회의소(www.cc.lu) (검색일: 2019.01.05.)
- 룩셈부르크 통계청(<https://statistiques.public.lu/stat>) (검색일: 2019.01.02.)
- 룩셈부르크 농림부(<https://ma.gouvernement.lu>) (검색일: 2019.01.02.)
- google(<https://www.google.co.kr/img?hl=ko&tab=wi>) (검색일: 2019.01.15.)
- The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WITS)(<https://wits.worldbank.org>) (검색일: 2019.01.10.)
- Worldbank(<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2019.01.05.)
- Wikipedia(<https://en.wikipedia.org>) (검색일: 2019.01.05.)
- 네이버 백과사전(<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19.01.05.)
- 브리태니커 사전(<https://www.britannica.com>) (검색일: 2019.01.05.)
- ASTA(Administration des Services Techniques de l'Agriculture, Luxembourg)(<https://agriculture.public.lu>) (검색일: 2019.01.02.)